

## 무너진 기초 질서

### 주차장 된 도로



29일 오후 3시 광주시 상무지구 한 결혼식장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들로 차량 한 대만이 겨우 통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단속 안하는데...” 불법 주차 판처

성숙한 시민사회의 관건은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문화도시 광주의 현 주소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넘쳐나고, 음란 전단물은 무차별로 뿌려지고 있다. 무단횡단과 신호위반, 쓰레기 투척 등 시민들의 무질서도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단속은 겉돌고 있다. 무질서 실태와 대책을 6차례에 걸쳐 실는다.

### 광천터미널 앞 8차선중 3개 차선 점령 민간 위탁견인업무 손봐... 교통체증 심각

광주시내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주요 관문도로는 물론 시내 이면도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령한 상태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빚어낸 결과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휴일인 29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택시 20여대가 편도 3차선 도로중 1개 차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당연히 인근 버스승강장에 진입하는 시내버스의 앞길이 막혀 순식간에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각, 광천터미널 앞 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택시들이 인도에 접한 차로 2개(7·8차로)를 차지한 데다 일반 차량도 1개 차로에 정차를 반복하면서 편도 8차선

도로 중 3개 차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대부분이 위험천만하게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첨단 9번’ 버스를 타고 광천터미널에 온 김현아(23·북구 용봉동)씨는 “매번 터미널 앞을 지날 때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며 “오늘은 버스가 승강장에 서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서 내려주는 바람에 뒤에 오는 차들을 피하느라 혼이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미래아동병원~봉선치안센터에 이르는 편도 1차로 봉선중앙로, 인근 상가에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도로 위를 진행하는 차들이 გადა 서기를 반복하면서 중앙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들 사이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까지 겹치면서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기도 하다.

주민 김은영(2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최근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불법 주정차가 더 극심해진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 된 차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했다”며 “구청이나 경찰에서 강력한 단속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광주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44만9천911대. 주차장은 35만6천262명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7대 도시 평균치(83.9%)에도 미치지 못하는 79.2%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광주시공사로부터 견인업무가 일선 구로 이관됐지만 견인차량 운전기사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늦어져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북구·서구·동구·남구는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냈으나 최종 선정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민원 위주의 소극적인 단속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

## “물의 죄송... 청계산엔 안갔다”

###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경찰 출두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보복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3면> 전날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그를 관계자들과 함께 자진 출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서에서 조사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보복 폭행을 당한 술

집 종업원들 주장을 토대로 김 회장에 직접 폭력을 휘둘렀는지, 폭행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폭력배를 동원했는지와 권총으로 중구 북창동 S클럽 사장을 위협했는지도 캐물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서에 도착한 뒤 “개인 문제로 물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직접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北京)에 체류 중인 김 회장의 둘째 아들 김모(21)씨는 예정대로 30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한 집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평균 3분의 1 수준

광주와 전남지역의 개별주택(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1.73%로 전국 평균(6.22%)의 27% 수준에 불과했으며, 전남의 상승률은 2.7%로 전국 평균의 43% 수준에 머물렀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이 22.8% 오른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7.7%, 9.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 세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주택이 2만2천300여 가구(24.6%)로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35만 가구, 평균 2.7%)의 최고 인상 시·군은 혁신도시지역 지평에 따라 부동산 거래사가 상승한 나주시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또 나머지 대다수 시·군들도 1~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함평군(-1.2%)과 영광군(-0.6%)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해 공시됐으며, 이 가격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평균 11.1%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전남 출신 총리 한명도 없어 호남인맥 대해부-국무총리실 ▶5면

우암학원 학약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논술[예선]  
5월1일~5월19일 접수  
▶ 현장예선심기대회  
5월9일까지 접수  
▶ [5월11일, 금호패밀리랜드]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222-8111

이베트의 귀족 - 한국 아델리움

**Aclium**

6월 9일 모델하우스 OPEN

본 계획서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주소 상단 주소이며 목표 옥암 아델리움 2주 최보서인

목포 속 작은 시드니 - 남악신도시 옥암 한국아델리움

## 100년을 기다린 도시가 목포에 탄생합니다!

목포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새로운 주거명작이 탄생합니다 - 남악신도시 옥암 한국아델리움

- 첨단미래형 신도시 - 전남도청 이전완료 등 2019년 까지 총 15만평, 440만평 개발 예정, 국내·외 교역 중심지의 잠재력을 보유한 국제적도시로 탈바꿈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 목포시와 하당신도시를 잇는 중심축, 대불·영암국가산업단지, 삼호지방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경제 자유도시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 배산임수 환경신도시 - 부주산, 부흥산, 영신호, 영신만 등 100만평의 청정바다와 10만평의 공원을 갖춘 배산임수의 입지, 스카이라인이 돋보이는 생태 주거도시입니다.
- 홈네트워크 및 무인경비 시스템 - 화상감시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 홈네트워크 시스템, 방문자 영상자정 및 세대간 화상통화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 친환경 시스템에어컨 - 냉·난방이 하나로 해결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여 공간활용은 물론 깔끔한 인테리어를 연출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 헬스, 에어로빅, 도서관 등의 공동 시설과 중앙공원, 가족건강마당, 테마놀이터 등 다양한 녹지공간이 있어 입주민의 즐거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문의 **061-282-0400**

세대수 **53·43·38A·38B평형 총 1108세대 중 576세대 (1차)**

**한국종합건설(주) www.hankukapt.co.kr**

한국 아델리움 모델하우스 위치도

한국 아델리움 현장 위치도